

# 말레이시아 이슬람의 문화적 특징

홍석준(목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최근 말레이시아를 찾는 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이슬람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점은 9·11 이후 아랍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비추어볼 때, 다소 아이러니하면서 역설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은 말레이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2009년 현재 말레이시아의 총 인구는 2,800만 명으로, 이를 종교 분포의 측면에서 보면, 무슬림 58.6%, 불교도 18.4%, 기독교도 8.1%, 힌두교도 6.4%, 유교와 도교 그리고 중국 전통신앙을 신봉하는 사람들 5.3%, 토속신앙을 신봉하는 사람들 1.2%, 그리고 시크교도와 바하이즘을 믿는 사람들 0.5%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인들은 대부분 이슬람을 신봉하는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Muslim)이며, 화인(華人)들은 대부분 불교와 도교를 믿고 있으며, 약 4%만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은 대부분 힌두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을 제외하고, 약 8%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 이슬람교는 끝란탄과 뜨렝가누, 삐를리스 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슬람은 말레이시아의 공식적인 국가 종교이다. 헌법에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무슬림들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에 이슬람교가 전파된 것은 약 13세기경으로, 그 이전에 존재하던 토속신앙 및 힌두교와 결합하여 매우 독특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당시 술탄(sultan)들은 매우 높은 자율성과 세속적 권위를 동시에 행사했는데 그 후 민간정부가 수립되면서 술탄이 행사하던 지배력은 약화되었고, 종교적 권위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졌다.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술탄제(sultanate)가 제도화되었다. 술탄은 이슬람과 말레이 전통관습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산하기관인 이슬람과말레이관습위원회(Majlis Ugama Islam dan Istiadat Melayu)를 통해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술탄을 비롯한 말레이 귀족층은 이슬람의 관료화를 위해 영국식민통치세력과 협력하여 이맘(imam)이나 울라마(ulama) 등 같은 종교 엘리트 집단들의 활동을 체계화하고, 이슬람법에 입각하여 혼인과 이혼 및 상속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관료인 까디(kadhi)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당시에 이맘이나 울라마 같은 이슬람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개혁주의 무슬림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말레이 무슬림의 정치 의식과 종교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말레이어로 된 신문이나 팸플릿을 통해 이슬람의 교리와 율법을 강조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슬람 종교 개혁과 사회개혁을 주창했던 그들은 뿐독(pondok) 즉 전통적인 이슬람 종교학교를 통해 자신의 이슬람 지식을 대중화하는 일에 힘썼다.

그러나 아직도 각 주의 지배자인 술탄은 그 주에서 최고의 종교적 지위를 행사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마을 단위에 존재하는 이슬람사원(masjid)의 지도자가 주 정부의 공식적인 관할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교는 수니파에 속한다. 시아파는 정치적 지배가 성직권위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에 수니파는 종교를 정치의 토대로 받아들이기는 하나 국가의 지배가 보다 궁극적인 것으로 본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교는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며 1930년대에는 이슬람 개혁사상가들이 말레이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하였고, 1970년에는 이슬람 부흥운동이 성행하여 엄격한 이슬람 전통에 따른 사회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13세기경에 이슬람이 말레이반도에 도입된 이래 이슬람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은 말레이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 왔다. 이슬람의 기본 교리와 가치는 말레이 사회를 하나로 묶는 정신

적 구심점의 역할을 해왔으며, 말레이인의 윤리의식과 도덕을 규정하고 말레이인의 단결과 유대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가치와 이념을 제공해왔다.

1970년대 이후 세계 각지의 거의 모든 무슬림 사회에서 이슬람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이슬람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이슬람 근본주의의 등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이슬람 근본주의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슬람이 말레이 반도에 도입된 이래 이슬람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은 말레이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 왔다. 이슬람의 기본 교리와 가치는 말레이 사회를 하나로 묶는 정신적 구심점의 역할을 해 왔으며, 말레이인의 윤리의식과 도덕을 규정하고 말레이인의 단결과 유대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가치와 이념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의 교리와 원칙을 강조하는 다양한 구호나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이후 급변하기 시작한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두드러졌다. 1970년대 초반부터 말레이시아 정부는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사회의 재구조화와 빈곤척결을 목표로 내세웠다. 신경제정책의 목표는 화인과 말레이인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말레이인을 근대적 부문에 적극적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슬람은 말레이인을 비말레이인과 구분 짓는 말레이 정체성의 가장 효과적인 준거 기준으로 부상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슬람부흥운동은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다과(dakwah)라 불리는 이 운동은 이슬람적 생활양식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초기에 주로 대도시의 대학생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출발하였다가 점차 말레이시아 전역의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이슬람과 말레이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다과 운동은 말레이인과 비말레이인, 또는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의 경계를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이슬람의 교리와 원칙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통해 말레이인을 내적으로 구분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 운동은 말레이계 정당들의 정치적 대립을 이슬람에 대한 해석과 실천을 둘러싸고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말레이 사회에서 이슬람은 다른 문화적 요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총체적 성격을 지니며, 이슬람은 사회집단이나 개인의 성격, 구체적인 사회상황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슬람은 종교적 교리의 규범적 측면이 아니라 무슬림의 실제적 행위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슬람부흥운동은 말레이 이슬람이 단순히 정치와의 관련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기존의 인식을 수정하고, 이슬람의 교리나 규범이 특정의 사회현실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이후 말레이시아 사회 내부의 이슬람과 말레이 민족의식과의 역사적인 관계, 사회변동 등의 촉진요인을 바탕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 결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이슬람적 기풍의 확산과 함께 폭넓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두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 현 시점에서 볼 때 비록 이슬람부흥운동은 이슬람국가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실현하진 못했지만 사회 전반에 이슬람적 기풍을 강화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슬람적 기풍의 강화는 이슬람 세력의 자체적인 노력은 물론,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전개된 마하티르의 이슬람화 정책의 결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정부의 이슬람화 정책 또한 이슬람부흥운동의 한 부류로 간주해도 큰 오류는 아닐 것이다.

둘째, 이슬람부흥운동은 말레이 사회의 분열을 가중시켰다. 이슬람과 말레이 민족정체성과는 여전히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큰 테두리에서 볼 때 현재 다민족사회인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은 말레이계와 비말레이계를 구분하는 기준임은 물론, 말레이계 단합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또한 말레이 사회에서 다과 말레이인과 비다과 말레이인 간에 신앙심의 독실성 논쟁은 이전의 시

대와 비교해 말레이 사회의 분열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슬람 부흥운동으로 인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화가 비말레이계나 타종교를 신봉하는 사회구성원들에게 끼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비무슬림들의 종교적 자유와 법률적 인정을 재확인해 주었다는 점이다. 둘째, 이슬람화 과정에서 종족과 종교적 동질성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자 종교가 특정 종족의 결속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종교 의례와 축제들이 되살아나 종교별 독창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웨삭데이(Wesak Day, 석가탄신일) 같은 불교 축제는 1960년대까지 별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1980년대 이후 일반대중의 관심을 끄는 큰 종교 행사가 되었고, 타이푸삼(Thaipusam) 같은 힌두 축제 또한 대중들의 많은 호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비무슬림들의 문화·종교적 르네상스는 말레이인들의 종교적 민족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대두한 것이다. 비무슬림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동질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상징과 의식 또는 축제를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비무슬림들이 정부의 이슬람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 중 하나가 종교 건축물과 묘지 신축에 대한 행정당국의 제재이다. 이들은 비무슬림의 예배장소를 통제하는 어떠한 조처도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의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불교·기독교·힌두교·시크교 자문위원회는 비무슬림들의 종교건축물 신축 등에 관한 불만은 정당한 절차과정을 거치지 않고 허가도 없이 무분별하게 건물을 준공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 종교 건축물 건설과 관련하여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의 심각한 이견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종교 인구수에 비례하는 예배장소 신축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종교 인구에 대비하여 비무슬림들에게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무슬림의 이슬람에 대한 지식과 실천은 특정의 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된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슬람과 전통관습이 확연히 구분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양자가 혼재하기도 한다. 말레이시아 농촌사회의 이슬람화는 이러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의 의미를 추적하는 일은 이슬람이 주민들의 의식이나 세계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일이다. 그것은 말레이 이슬람의 세계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이슬람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말레이 농촌에서의 이슬람화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슬람의 의미변화뿐 아니라 주민들이 이슬람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영역과 어떻게 관련지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한편, 다민족사회라는 말레이시아의 특수한 환경과 이슬람의 현대화를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목표를 고려하여 이슬람화 정책의 수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남포럼뉴스레터, 2009.12.11 게재된 글로, 필자의 허락하에 전재했음)